

관악 초청 강연



2008년 2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악 초청 강연이 개최되었다.

회 차	일 시	장 소	연사 및 주제
33	09. 30(화) 3시 - 6시	서울대학교 61동 320호	이순재(연기자) 이순재, 나는 왜 아직도 연기하는가
34	11. 06(목) 3시 - 6시	서울대학교 61동 320호	조장희(가천의과대학교 석학교수, 뇌과학연구소 소장) 과학자 조장희의 열정적 삶

화상회의 개최

기초교육원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우수대학 사례들의 벤치마킹이 빈번해지는 추세에 부응하여 기초교육원 구성원을 중심으로 61동 320호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에는 MIT의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Neal Lerner(Director of Training,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교수님과 Mya Poe(Director, Technical Communication) 교수님께서 MIT의 모든 학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쓰기 통합과정(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이라는 프로그램의 역사, 중요성, 운영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9일에는 Brown 대학에서 최근에 공개한 자체평가 최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학부전체 학장님이신 Katherine Bergeron (Dean of the College) 교수님 외 몇 분을 모시고,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Brown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는 주로 세 영역(liberal education, advising, teaching and learning)으로 나뉘어서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 화상회의를 통하여 Brown 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유전공학부제의 장점/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전공학부 제도 하에서는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동안 당면 했던 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책을 찾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교양교육포럼

기초교육원에서는 소속원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로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08학년도 2학기에는 2건의 교양교육포럼이 개최되었다. ★ 1차 교양교육포럼은 10월 17(금) 오후 5시, 61동 120호에서 ‘문학-동서고금을 가로지르는 다원/중층의 텍스트’라는 제목으로 임명신 중국어 강의교수가 발표해주었고, 최종철 연구 교수는 ‘교양교육 강화-방향과 논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었다. ★ 2차 교양교육포럼은 11. 20(목) 오후 5시 61동 207호에서 Shunya YOSHIMI 동경대 정보학원 대학원 원장이 ‘동경대의 융합 과정 운영, 그리고 법인화 문제’로 발표하였다.

사회봉사3(해외봉사)

2008. 동계 계절학기 사회봉사 3은 인도로 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주로 인도 카나타카(Karnataka) 주 벵갈루루(Bangaluru) 시 사라자뿌(Sarajapur) 및 인근지역에서 이주건축노동자들의 자녀 대상 주간보호, 교육, 급식, 보건과 영양급식사업을 통해 총체적 빈곤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State 날리기리스(Niligiris)District 내 무두말리(Mudhumali) 삼림보존지역에서는 부족민대상 교육, 식수지원, 보건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제반 빈곤율을 낮추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사회봉사3의 파견인원은 약 15~17명으로 지도교수 1명, 인솔자 1명이 동행한다. 파견일시는 2009년 1월 5일~18일, 총 13박 14일로 아동교육봉사와 노력봉사(페인트칠, 화단가꾸기 등), 지역생활 체험 및 문화탐방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

2009학년도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다. 자유전공학부는 “경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경계를 넘어”라는 표현은 자유전공학부가 지향하는 자유, 즉 기존 분과 학문의 경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미래로”는 좁게는 자유전공학부의 교육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개인의 미래를, 넓게는 국가와 학문,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뜻한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기초 교양 과정

-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능력 양성
- 글쓰기, 수학, 기초과학, 외국어 등

2. 전공과정

- 학생이 설계하는 융합적 전공과정을 기본으로 함
- 기존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영역 선택도 가능(단, 의학, 수의학, 간호학, 사범계열 제외)

3. 특화과정

- 자유전공학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과정
- 사회봉사, 문예창작 및 실기 함양 프로그램, 스포츠 팀 활동 등

2009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

계열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인문계열	93	65	28
자연계열	64	45	19
계	157	110	47

자유전공학부 교양과목 교육의 특징은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표현 수업강화,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강조하는데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을 강화 하여 제 2외국어(3), 중급이상 제 2외국어 및 고전어(3)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인문계와 자연계의 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수학 등의 수량적 분석교과목을 필수로 이수케 하고, 이과 출신 학생들에게 글쓰기, 논리와 비판적사고, 사고와 표현 등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